

3주차

조선의 건국, 정치이념으로서 유교, 그리고 왕

소진형

학습목차

학습목표

학습내용

01. 동아시아 정치체제와 유교

- 도입
- 유교의 성선론과 정치체제
- 춘추전국시대의 정치에 대한 아이디어

02. 법가의 국가와 왕에 대한 관점

- 춘추전국시대의 전쟁과 국가의 위기, 법가적 정치모델의 출현
- 법가의 인간에 대한 정의

03. 법가의 성인, 그리고 왕

- 법가의 성인(聖人), 그리고 성왕(聖王)
-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가
-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법

04. 유교의 좋은 왕과 좋은 정치

- 유교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규정: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다
-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와 왕

05. 유교에서 예와 왕의 관계

- 인간의 본성이 제도의 토대이다
- 유교적 질서의 구체화로서의 예(禮)

5차시

강한 무력을 소유한 왕

VS

성리학적 군주

학습목차

학습목표

- 조선이 유교를 지향함에도 강한 무관을 왕으로 삼았던 현실적 이유와 이후 역사적 전개에서 어떻게, 그리고 왜 왕들을 성리학적 군주로 만들 고자 하는지 이해한다.

학습내용

- 이성계의 다음 왕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 왕자의 난과 정도전의 제거

이성계의 다음 왕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성리학자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왕

- 신하들의 의견 존중함
- 경청의 자세를 가짐

누가 이성계의 다음 왕으로 적합한가

- 태조와 정도전의 선택
 - 조선 개국 1개월 만에 **10살**에 불과한 태조의 **8번째 아들** 이방석을 왕세자로 선택

누가 이성계의 다음 왕으로 적합한가

- 이미 성인이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
다른 아들들보다 어리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성리학적 군주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막내아들을 선택



의안대군 이방석 묘

왕자의 난과 정도전의 제거

제1차

왕자의 난

-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함

왕위계승자의 선택과 왕자의 난

- 제1차 왕자의 난: 정도전 제거됨

왕은 말하노라. 삼가 생각하건대, 상왕(上王)께서 천리(天理)와 인심(人心)에 순응하여 비로소 국가를 세우고 강기(綱紀)를 베풀어 만세(萬世)에 모범을 보였는데, 불행히도 간신(奸臣) 정도전과 남은 등이 연줄을 타서 권세를 부리고 몰래 권력을 마음대로 하기를 도모하였다. …

왕위계승자의 선택과 왕자의 난

- ... 이에 어린 서자(庶子)를 세자로 세워 후사(後嗣)로 삼고서 장유(長幼)의 차례를 빼앗고 적서(嫡庶)의 구분을 문란시키고자, 우리 형제를 이간시켜 서로 선동하여 변고를 발생시켜서 화(禍)가 불측할 지경에 있었는데, ...

왕위계승자의 선택과 왕자의 난

- ... 다행히 천지와 종사(宗祀)의 신령이 몰래 도와주고 충신 의사(義士)들이 마음과 힘을 다함에 힘입어, 간악한 무리들이 형벌에 복종하여 참형(斬刑)을 당하고 나라의 운명이 편안하게 되었다.

《태조실록》 7년(1398년) 9월 12일

1398년 9월 12일 교유

정도전에 대한 평가

- 어린 서자 방석을 왕세자로 세운 간악한 인물로 묘사

왕위계승자의 선택과 왕자의 난

- 이방석이 왕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 유교의 도덕 규범인 **장유유서**에 **맞지 않으며**,
첩의 자식이기 때문

왕위계승자의 선택과 왕자의 난

- 1.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제사는 마땅히 성심과 공경을 다하여, 진설하는 작헌(酌獻)의 기구는 정결하기를 힘쓰고, 예문(禮文)과 악장(樂章)은 절차에 맞도록 힘써서 감히 불공(不恭)함이 없게 할 것이다.
- 2. 문선왕(文宣王: 공자)은 백대(百代) 제왕의 스승이니, 석채(釋菜)의 제례(祭禮)를 마땅히 정결하게 하고 혹시라도 삼감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왕위계승자의 선택과 왕자의 난

- 3. 기자(箕子)는 조선(朝鮮)에 봉토(封土)를 받아 실제로 풍화(風化)의 기초를 닦았으며, 고려 왕조의 시조(始祖)는 삼한(三韓)을 통합하여 모두 동방 백성에게 공로가 있으니, 마땅히 제전(祭田)을 두어 사시(四時)에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이다.
- 4. 하늘의 보고 듣는 것은 실상 백성에게 있으니, 그 백성에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여, 내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뜻에 부합하게 할 것이다.

왕위계승자의 선택과 왕자의 난

- 5. 임금과 신하는 한 몸이니 의리상 기쁨과 근심을 같이하게 된다. 대소신료(大小臣僚)들은 시정(時政)의 잘되고 잘못된 점과 민생(民生)의 이롭고 해되는 점에 있어서 할 말을 다하여 숨기지 말며, 소민(小民)의 원통하고 억울하여 풀리지 못한 것은 또한 나아와서 고하게 할 것이다.

《태조실록》 7년(1398년) 9월 12일

종묘와 사직

- 종묘 제사: 왕실을 존중하고 권위를 세움
- 사직 제사: 국가의 주재자가 왕이라는 점을 강조함

정종의 입장

- 태조의 아들들의 폭력성을 강조하지 않음
- 정종 자신이 **성리학적 군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

정종의 ‘왕자의 난’ 정당화

- 성리학적 군주로서 자신의 면모를 강조
- 왕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왕자의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님
- 정도전의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것
- 유교적 윤리에 어긋나는 왕위계승을 막기 위한 것



정종실록

정종의 입장

- 유교를 내세움
 - 조선이 성리학적 국가로 출범
 - 국가의 정당성이 유교에서 나옴을 의미함

무관을 왕으로 세운 성리학자들

- 여말선초의 복잡한 대내외적 정치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새로운 국가를 꿈꿨던
성리학자들에 의해 세워진 조선은 아이러니하게도
강한 무력을 가진 **무관을 왕으로 내세움**

‘왕자의 난’의 역설

- 왕자들 간의 왕위 계승 투쟁은 역설적으로
왕이 성리학적 덕목을 내세우지 않으면
그 권력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

마무리

- 태조 이성계의 왕위 정당성의 복잡성
- 성리학적 국가 성립의 과정

다음 시간에는

- 조선의 왕과 왕비의 삶을 구체적으로 검토

[출처01] 문화재청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46913&ccbaKdcd=23&ccbaAsno=01660000&ccbaCtcd=31>

[출처02]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A2%85%EC%8B%A4%EB%A1%9D#/media/%ED%8C%8C%EC%9D%BC:%EC%A0%95%EC%A2%85%EC%8B%A4%EB%A1%9D_%ED%91%9C%EC%A7%80.gif

- ❖ 『고려사』 (<https://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types=r>)
- ❖ 『태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 ❖ 『세종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 ❖ 『삼봉집』 (db.itkc.or.kr)
- ❖ 박창희. 2015. 『역주 용비어천가』 .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 Deuchler, Martina.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 Bol, Peter. 2008. Neo-Confucianism in History. Bost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Leiden, Boston: Brill.
- ❖ 위잉스 저, 이원석 역. 2015. 『주희의 역사세계』 상. 파주: 글항아리.
- ❖ 황향주 2022. 「10~13세기 고려 왕실의 구조와 편제」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